

# 스포츠사상에 대한 주관성 연구

유영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 A Subjective Study on Sport Ideologies

Young-Seol Yu

Teacher, Suwon High School for Agricultural Science

요 약 본 연구는 스포츠사상에 대한 주관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체육과 관련한 교사, 교수, 연구원, 행정가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5명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유형이 탐색되었다. 제1유형은, '공정승패형'으로, 스포츠사상에 대해 승패, 공정판정, 각본 없는 드라마, 참가정신 등 스포츠경기와 관련한 진술문에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제2유형은 '체육철학형'으로, 스포츠사상에 대해 스포츠철학, 심신일원론, 호연지기, 화랑도정신 그리고 스포츠논리학 등 스포츠철학과 관련한 진술문에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제3유형은 '소통활동형'으로, 스포츠사상에 대해 소통의 장, 사회활동, 배려 등 스포츠의 참여활동과 관련한 진술문에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제4유형은 '건강복지형'으로, 스포츠사상에 대해 복지, 노후보장, 레저, 오락(게임), 건강 등 생활체육과 관련한 진술문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주제어 : 스포츠사상, 체육전공자, 주관성, 인식, Q-방법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hysical education majors' subjective perception on sports ideologies using Q-methodology. This study found four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on sports thoughts. Type I is named 'the type of fair victory and defeat.' The subjects of type I emphasize the items of victory and defeat, fair judgement, a drama without a scrip, etc. Type II is named 'the type of sport philosophy.' The subjects of type II emphasize the items of sport philosophy, theory of one of mind & body, great spirit, hwarangdo spirit, sport logic, self-improving, etc. Type III is named 'the type of communication & social activity.' The subjects of type III emphasize the place for communication, social activity, consideratio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etc. Type III is named 'the type of communication & social activity.' The subjects of typeIV emphasize welfare, security for the aged, leisure, entertainment(game), healthy, etc.

Key Words : Sports Ideologies, Physical Education Majors, Subjectivity, Perception, Q-methodology.

### 1. 서론

이데올로기(ideology)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의 방법과 형태로서 세계관,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등 다양한 신념 체계 혹은 인식체계를 말한다[1]. 사람들은

사고 작용을 통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평가하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근접한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지지한다 [2,3].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시대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프레임(frame)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

\*Corresponding Author : Young-seol Yu(yssports4u@hanmail.net)

Received April 02, 2019  
Accepted June 20, 2019

Revised May 15, 2019  
Published June 28, 2019

을 찾는데 방향을 설정해준다[4].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주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특정 분야의 본질과 실제 간의 간극을 읽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전인 교육을 위한 수단인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활동인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의 핵심요소인가?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국민의 교육과 건강, 행복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다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의 구성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과연 스포츠가 그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시의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포츠의 현재 위치와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은 체육학 분야, 특히 스포츠철학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5]. 이를 반영하듯, 체육 및 스포츠사상과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체육스포츠사상은 실용주의[6,7], 공리주의[8], 국가주의[9], 유학사상[10] 그리고 신이상주의 사상[5]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물의 사상을 주제로 한 연구는 퇴계의 체육교육사상[11], 아리스토텔레스의 체육사상[12] 그리고 플라톤의 체육사상[1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호메로스(Homeros) 시대의 체육스포츠사상[14]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시대, 인물 그리고 사상적 접근을 통해 체육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스포츠의 본질적 탐구는 주로 관념론과 실재론을 적용한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와 실증주의의 간극을 설명하기에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강유원[5]은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의 바람직한 면을 중심으로 신이상주의 사상을 제안한다. 신이상주의는 현대 사회의 지나친 실용주의 사상의 증시로 인해 발생하는 스포츠의 상업화와 결과 중심적 사고에 기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의 두 사상적 통섭을 강조함으로써 사상

간 절충점을 찾고자 한다. 이는 체육스포츠 본질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킴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스포츠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스포츠를 본체도에 올려놓는데 시사점을 제시한다[5].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체육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스포츠가 현대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영역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의 다의적 접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고경석 외[15]가 강조했다듯이, 체육사상 연구가 논리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철학적 체계를 이루고 있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전통적 관념론을 중심으로 한 사상연구는 과학화를 지향하는 현대 스포츠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5]. 스포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사상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사상적 접근은 스포츠의 사회 현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과 관련한 전공자들이 어떠한 스포츠사상을 견지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체육 전공자, 즉 교사, 교수, 연구원, 행정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사상은 그와 관련된 주변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스포츠사상에 대한 인식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사상이 어떠한 인식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연 스포츠사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또는 보다 이상적인 방향으로의 전개를 위해 어떠한 제도 및 정책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지를 탐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 전공자들의 인식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전공자의 주관성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둘째,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전공자의 인식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사상에 대한 주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인간 간의 태도, 신념, 가치 등의 주관적 영역을 측정하고자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창안한 연구 방법론이다[16]. 이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가 관련 자극을 분류하고 순서를 정하는 자결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주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형화에 이르는데, 이는 파편화되고 모호한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드러내게 해 준다[16,17]. 스포츠사상에 대한 주관성은 온전히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태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Q방법론의 활용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2.1 연구대상

Q방법론에서 연구대상은 P표본(P-Sample)을 말한다. Q방법론은 자극들이 갖는 주제에 대한 개인(P-Sample) 내의 의미의 중요성에 따른 차이를 다루기 때문에 소표본 이론(Small-Sample Doctrine)에 근거한다[18].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교사, 대학생, 강사 등 체육전공자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절차

2.2.1 Q모집단과 Q표본(진술문) 추출

Q모집단은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전공자들의 인식의 총합체를 말한다. Q모집단은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서적을 통해 스포츠사상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Q모집단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꾸준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교수 1인과 체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인 그리고 본 연구자가 삼각검증법을 통해 진술문의 중요도와 내용 타당도 등을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최종 36개의 Q표본(진술문)을 추출하였다.

Table 1. Q-Sample

Statements	
1. Sport Philosophy	19. Order of Rank
2. Sport Logic	20. Entertainment(Game)
3. Healthy	21. Sportsmanship
4. Welfare	22. Sixth Sense
5. Social Discipline	23. Consideration
6. Security for the aged	24. Marathon
7. Hwarangdo Spirit	25. Participation Spirit
8. Olympic Spirit	26. Victory and Defeat
9. Self-Improving	27. Cool-Headed Reason
10. Theory of One of Mind & Body	28. A Drama without a Script
11. Authoritarianism	29. Leadership
12. Pragmatism	30. Fair Play
13. Empathy with Public	31. Fair Judgement
14. Leisure	32. Respect
15. Social Activity	33. Ethical Attitude
16. Great Spirit	34. Patience
17. Culture	35. Improving of the Quality of Life
18. Energizer	36. A Place for Communication

2.2.2 Q-분류(Q-sorting)

Q분류(Q-sorting)는 연구대상자가 Q표본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분류(forced-distribution)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Q분류는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메일(e-mail)을 통해 응답자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를 수거하였다. Q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배부 전에 응답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에 Q분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재차 보내 응답자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대상자 25명은 36개의 Q표본을 상대적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분포도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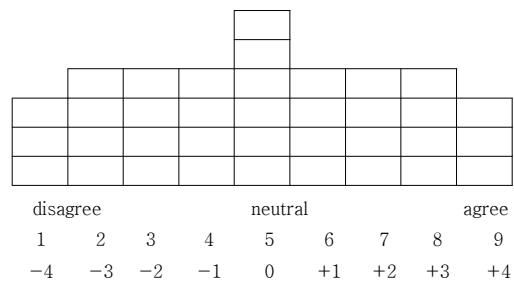


Fig. 1. Q-Sample Distribution Structure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Q분포도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4)을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것(0)에 5점 그리고 가장 긍정하는 것(+4)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coding)하여 QUANL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배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은 각 유형의 고유값(eigen-value)이 1.0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인의 인식 유형화 결과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인의 인식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고유값(Eigen Value)은 Table 2와 같이 9.6663, 2.2560, 1.7795, 1.5405 순이며, 누적변량은 0.6097로 약 61%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igen Value and Variances

	I	II	III	IV
Eigen Value	9.6663	2.2560	1.7795	1.5405
Variance(%)	.3867	.0902	.0712	.0616
Cumulative Variance(%)	.3867	.4769	.5481	.6097

유형 간의 상관계수는 Table 3과 같이 <유형 I>과 <유형 II>는 .438, <유형 I>과 <유형 III>은 .526, <유형 I>과 <유형 IV>는 .480 그리고 <유형 II>와 <유형 III>은 .274, <유형 II>와 <유형 IV>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Factors	I	II	III	IV
I	1.000			
II	.438	1.000		
III	.526	.274	1.000	
IV	.480	.313	.492	1.000

Table 4. Factor Loadings and the P-Sample

Factors	ID	Loadings	Gender	Age	Job
Factor I (N=9)	P10	2.8856	M	45	Instructor
	P18	2.2455	M	24	Student
	P9	1.2973	M	45	Researcher
	P21	.9637	F	36	Grad-Student
	P16	.8464	F	25	Grad-Student
	P8	.7686	M	49	Administrator
	P2	.7357	M	26	Student
	P17	.6265	F	22	Student
	P19	.3268	M	23	Student
Factor II (N=4)	P6	3.1224	M	46	Professor
	P13	1.3741	M	58	Teacher
	P5	1.1417	M	66	Instructor
	P15	.5043	M	32	Grad-Student
Factor III (N=6)	P22	3.8829	M	24	Student
	P23	1.6403	M	20	Student
	P24	1.4557	M	26	Student
	P4	.9429	M	25	Student
	P25	.7886	M	21	Student
	P7	.7266	M	45	Professor
Factor IV (N=6)	P11	3.9595	M	47	Teacher
	P3	1.1604	M	25	Student
	P14	.8345	M	43	Instructor
	P1	.8182	F	23	Student
	P12	.7710	F	38	Teacher
	P20	.5567	M	23	Student

Table 4는 각 유형별 연구대상자(P표본)의 인자가중치(factor weight)와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자가중치는 연구대상자의 유형성 지표로서 인자가중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의 전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4개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 I은 총 9명 중 남자 6명, 여자 3명, 평균 나이 약 33세, 직업은 대학 강사, 스포츠 연구원, 행정가가 각각 1명씩 그리고 대학원생 2명과 대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다. 유

형 II는 총 4명 중 모두 남자로, 평균나이 약 51세, 직업은 교수, 교사, 강사 그리고 대학원생이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유형 III은 총 6명 중 남자 6명, 평균나이 약 27세, 직업은 학생 5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유형 IV는 총 6명 중 남자 4명, 여자 2명, 평균나이 약 33세, 직업은 교사 2명, 대학생 3명, 강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 3.2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인의 인식 유형별 특성

스포츠사상에 대한 체육인의 유형별 특성은 각 유형별 표준점수  $\pm 1.00$  이상인 Q진술문과 유형 간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 그리고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의 진술문을 토대로 각 유형을 분석하였다.

#### 3.2.1 제1유형: 공정승패형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에 속한 체육인의 스포츠사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공정관정 그리고 올림픽 정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인식은 노후보장, 화랑도 정신, 권위주의, 사회기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긍정적인 인식은 Table 6과 같이 승패, 공정관정, 각본 없는 드라마, 참가정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인식은 화랑도 정신, 심심일체론, 삶의 질 향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 정신하면 스포츠맨십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관정이 곧 스포츠사상이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P10)”

“스포츠에서 극적인 장면은 스포츠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있어서 페어플레이는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P18)”

따라서 제1유형은 스포츠사상을 스포츠경기 장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술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공정승패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

Q-Statement	Z-Score
30. Fair Play	2.01
21. Sportsmanship	1.69
31. Fair Judgement	1.60
8. Olympic Spirit	1.34
28. A Dream without a Script	1.16
29. Leadership	1.07
26. Victory and Defeat	1.07
25. Participation Spirit	1.04
.....	
2. Sport Logic	-1.33
12. Pragmatism	-1.34
5. Social Discipline	-1.42
11. Authoritarianism	-1.45
7. Hwarangdo Spirit	-1.50
6. Security for the aged	-1.87

Table 6. Factor I Item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Z	Diff
26. Victory and Defeat	1.070	-.718	1.789
31. Fair Judgement	1.600	.151	1.449
28. A Drama without a Script	1.156	-.247	1.403
25. Participation Spirit	1.037	-.030	1.067
19. Order of Rank	-.321	-1.367	1.046
.....			
35. Improving of the Quality of Life	-.104	1.016	-1.119
10. Theory of One of Mind & Body	-.903	.494	-1.397
7. Hwarangdo Spirit	-1.497	.070	-1.567

3.2.2 제2유형: 체육철학형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2유형에 속한 체육인의 스포츠사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페어플레이, 심신일원론, 스포츠맨십, 리더십, 마음닦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인식은 노후보장, 오락(게임), 권위주의, 마라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긍정적인 인식은 Table 8과 같이 스포츠철학, 심신일원론, 호연지기, 화랑도정신, 스포츠논리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인식은 건강, 레저, 오락(게임), 활력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한 응답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체육철학은 체육적 사고(체계적), 정신, 체육사상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사상에서 가장 우선시 여겨집니다. 체육관련 체계적 지식과 옳고 그름의 문제(가치)까지 포함한 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 또한 매우 중요한 스포츠사상으로 생각합니다. 심신일체론이나 심신이체론 등의 존재론적 문제는 체육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에 스포츠사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됩니다(P6).”

따라서 제2유형은 스포츠사상을 스포츠철학과 관련한 진술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스포츠철학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7.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I

Q-Statement	Z-Score
30. Fair Play	1.64
10. Theory of One of Mind & Body	1.46
21. Sportsmanship	1.44
29. Leadership	1.39
9. Self-Improving	1.19
16. Great Spirit	1.12
1. Sport Philosophy	1.10
33. Ethical Attitude	1.06
32. Respect	1.02
.....	
22. Sixth Sense	-1.08
19. Order of Rank	-1.28
5. Social Discipline	-1.31
24. Marathon	-1.39
11. Authoritarianism	-1.43
20. Entertainment(Game)	-1.46
6. Security for the aged	-1.83

Table 8. Factor II Item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Z	Diff
1. Sport Philosophy	1.105	-.898	2.003
10. Theory of One of Mind & Body	1.460	-.294	1.754
16. Great Spirit	1.115	-.606	1.721
7. Hwarangdo Spirit	.786	-.691	1.477
2. Sport Logic	.204	-1.190	1.395
9. Self-Improving	1.194	-.172	1.366
.....			
17. Culture	-.707	.376	-1.083
18. Energizer	-.660	.692	-1.353
20. Entertainment(Game)	-1.457	.164	-1.621
14. Leisure	-.803	.851	-1.654
3. Heathy	-.481	1.307	-1.788

3.2.3 제3유형: 소통활동형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3유형에 속한 체육인의 스포츠사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페어플레이, 존중, 삶의 질 향상, 스포츠맨십, 소통의 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인식은 권위주의, 화랑도정신, 스포츠논리학, 위계질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긍정적인 인식은 Table 10과 같이 소통의 장, 사회활동, 육감, 배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인식은 올림픽정신, 인내력, 호연지기, 마음닦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한 응답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상황 속에서 공정함과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22).”

“스포츠활동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친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정신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P24).”

따라서 제3유형은 스포츠사상을 개인이 스포츠의 참여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소통, 교감 등과 관련한 진술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소통활동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9.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II

Q-Statement	Z-Score
30. Fair Play	1.76
32. Respect	1.53
35. Improving of the Quality of Life	1.52
21. Sportsmanship	1.45
36. A Place for Communication	1.37
23. Consideration	1.34
3. Healthy	1.20
18. Energizer	1.00
.....	
1. Sport Philosophy	-1.07
16. Great Spirit	-1.11
5. Social Discipline	-1.20
19. Order of Rank	-1.22
2. Sport Logic	-1.29
7. Hwarangdo Spirit	-1.30
11. Authoritarianism	-1.83

Table 10. FactorIII Item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Z	Diff
36. A Place for Communication	1.368	-.132	1.500
15. Social Activity	.779	-.710	1.488
22. Sixth Sense	.006	-1.089	1.094
23. Consideration	1.340	.279	1.061
35.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1.517	.475	1.042
.....			
25. Participation Spirit	-.654	.534	-1.188
9. Self-Improving	-.766	.482	-1.248
16. Great Spirit	-1.113	.136	-1.249
34. Patience	-.424	1.003	-1.427
8. Olympic Spirit	-.726	1.109	-1.835

3.2.4 제4유형: 건강복지형

Table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4유형에 속한 체육인의 스포츠사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건강,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레저, 삶의 질 향상, 복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인식은 권위주의, 육감, 사회기강, 위계질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 긍정적인 인식은 Table 12와 같이 복지, 노후보장, 레저, 오락(게임)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인식은 승패, 육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한 응답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는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잖아요. 스포츠는 복지입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죠(P11).”

Table 11.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V

Q-Statement	Z-Score
3. Healthy	1.74
30. Fair Play	1.51
21. Sportsmanship	1.40
14. Leisure	1.37
35. Improving of the Quality of Life	1.34
4. Welfare	1.33
34. Patience	1.23
8. Olympic Spirit	1.12
.....	
12. Pragmatism	-1.03
1. Sports Philosophy	1.12
26. Victory and Defeat	-1.19
19. Order of Rank	-1.60
5. Social Discipline	-1.64
22. Sixth Sense	-1.66
11. Authoritarianism	-1.76

Table 12. FactorIII Item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Z-Score	Average Z	Diff
4. Welfare	1.325	-.829	2.154
6. Security for the aged	.106	-1.561	1.667
14. Leisure	1.374	.126	1.249
20. Entertainment(Game)	.658	-.540	1.199
3. Healthy	1.744	.566	1.178
.....			
22. Sixth Sense	-1.658	-.534	-1.124
26. Victory and Defeat	-1.191	.035	-1.227

따라서 제4유형은 스포츠사상을 건강, 복지, 레저 등 생활체육활동과 관련한 진술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건강복지형’으로 명명하였다.

3.3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인식

본 연구에서 탐색된 4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인 인식을 보인 진술문은 Table 13과 같다. 체육인은 스포츠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강조했다. 반면에 부정적 인식에는 권위주의와 사회기강으로 나타났다.

Table 13. Consensus Items

Q-Statement	Z-Score
30. Fair Play	1.73
21. Sportsmanship	1.49
.....	
5. Social Discipline	-1.39
11. Authoritarianism	-1.62

4. 논의

본 연구는 체육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교수, 교사,

연구원, 강사,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사상에 대한 인식유형을 탐색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어떤 이념과 사고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용주의 사상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의 본질 및 이상적 스포츠사상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이다. 연구결과 체육사상에 대한 체육인들의 주관성은 4가지로 탐색되었다. 제1유형은 ‘공정승패형’, 제2유형은 ‘체육철학형’, 제3유형은 ‘소통활동형’ 그리고 제4유형은 ‘건강복지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공정승패형’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스포츠사상에 대하여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공정관정 그리고 올림픽 정신 등의 용어를 떠올렸다. 또한, 승패, 각본 없는 드라마, 참가정신 등의 용어에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진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올림픽과 프로스포츠 등 실제 스포츠 경기 장면과 관련한 용어를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스포츠사상은 스포츠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스포츠 활동 속에서 선수들의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의 중요성과 심판의 공정한 판정을 강조한다. 또한,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참가정신을 강조하여 공정성이 기본이 된 정정당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스포츠는 승패를 겨루는 활동으로 경기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감동적인 장면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을 느끼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스포츠사상을 순수한 스포츠 정신, 즉 스포츠맨십 또는 공명정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종철[19]의 연구에서 운동 기능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체육교육에서 인성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맨십, 팀워크, 페어플레이, 규칙준수 등의 요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을 통한 도덕적 가치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이상주의 체육교육을 강조한 김영찬[20]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유형의 대상자가 생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강사, 체육회 연구원, 체육회 행정업무 담당자 그리고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의 전공과 업무특성 그리고 자신의 스포츠 활동 관심 분야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0은 운동선수 출신이면서 생리학과 트레이닝론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강사로서 개인의 경험 및 직업에 따른 인식이 스포츠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제2유형은 ‘체육철학형’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스포츠사상에 대하여 페어플레이, 심신일원론, 리더십, 마음다기 등의 용어를 강조했다.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진 긍정적 반응을 보인 용어는 스포츠철학, 심신일원론, 호연지기, 화랑도 정신, 스포츠논리학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체육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스포츠사상을 인식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즉,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사고는 강유원[5]과 이학준[21]이 현대 스포츠 현장에서 승리至上주의의 팽배를 비판하면서 강조한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스포츠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뒷받침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유형의 대상자가 체육사를 전공한 대학 교수, 체육사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 강사 그리고 교사,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전공과 관련하여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제일 높은 P6은 대학에서 체육사를 가르치고 있는 체육사 전공자로서 직업 및 개인의 철학적 사고가 스포츠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제3유형은 ‘소통활동형’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스포츠사상에 대하여 페어플레이, 존중, 삶의 질 향상, 스포츠맨십, 소통의 장 등의 용어를 강조했다. 또한, 소통의 장, 사회활동, 육감, 배려 등의 용어에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진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참여적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서 스포츠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정학[7]의 연구에서 실용주의 체육사상에서 체육의 목표를 신체적, 생리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화와 민주성의 획득을 포함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 유형의 대상자는 대학생과 대학 교수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대상자들은 스포츠가 이타심과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22는 대학생으로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어 대학에서 다양한 신체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개인의 전공 및 스포츠 참여 형태가 스포츠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제4유형은 ‘건강복지형’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스포츠사상에 대하여 건강, 페어플레이, 레저, 삶의 질 향상, 복지 등의 용어를 강조했다. 또한, 복지, 노후보장, 레저, 오락(게임), 건강 등의 용어에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진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생활체육에

참여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즐거움을 찾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장재용과 권오륜[8]의 연구에서 강조한 스포츠의 공리주의적 접근에서 강조한 스포츠를 통한 복지 사회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백순기[22]의 연구에서 스포츠를 통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웰빙(wellbeing)의 가능성을 강조한 주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유형의 대상자는 교사, 대학생, 강사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대상자들은 스포츠사상을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회의 복지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1은 중등학교 교사로서 현재 중등학교에서 건강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강조하고 체육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 및 직업이 스포츠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다양한 사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사상의 다양성은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의 형성은 개인의 스포츠활동 참여 형태 및 종목, 교육경험 그리고 직업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요인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가치가 스포츠활동 중심으로 부여되고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충실히 그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지나치게 현실에 중점을 둔 실용주의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간다면 사회의 요구에 따라 스포츠의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실용주의가 철학적 사유를 완전히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23], 실용적 가치가 본질적 가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체육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스포츠의 본질적, 철학적 사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제2유형 '체육철학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유형에서 스포츠 본질에 대한 진술문에는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하여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도 대부분 체육사를 전공하고 관련 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스포츠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포츠가 그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필요와 가치가 더해져 행해질 때 스포츠의 왜곡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육전공자들에 대한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통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실용주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정신 및 사상 또는 이데올로기(Ideology)는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이데올로기는 시대상을 바탕으로 한 사상적, 철학적 요소로서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스포츠사상에 대한 좌표를 파악하고 미래에 스포츠의 역할 및 지향점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스포츠사상 및 정신, 체육사상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36개의 Q-표본을 추출하고 체육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교수, 강사 그리고 체육회 연구원 및 행정업무 담당자 등 25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사상은 4개의 유형의 탐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개의 유형에 대한 설명력은 <유형 I>은 38.7%, <유형 II>는 9.0%, <유형 III>은 7.1% 그리고 <유형 IV>는 6.2%로 전체 약 6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각 유형별 P-표본의 분포는 <유형 I>은 총 9명으로 대학 강사, 스포츠 연구원, 행정가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다. <유형 II>는 총 4명으로 교수, 교사, 강사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형 III>은 총 6명으로 대학생과 교수로 구성되었다. <유형 IV>는 교사, 대학 강사 그리고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유형 I>은 스포츠사상을 승패, 공정판정, 각본 없는 드라마, 참가정신 등 스포츠 경기 장면과 관련한 진술문에 강한 반응을 보여 '공정승패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는 스포츠사상을 스포츠철학, 심신일원론, 호연지기, 화랑도정신 등 스포츠철학과 관련한 진술문에 강한 반응을 보여 '체육철학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I>은 스포츠사상을 소통의 장, 사회활동, 배려 등 스포츠활동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소통과 배려 등과 관련한 진술문에 강한 반응을 보여 '소통활동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V>는 스포츠사상을 복지, 노후보장, 레저, 오락, 건강 등 개인의 건강과 복지 측면과 관련한 진술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건강복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 형성은 대상자의 전공 및 직업 그리고 스포츠활동 참여 형태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각 유형은 다양한 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나름의 스포츠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주의와 이상주의,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체육교육사상 그리고 공리주의 사상이 그것이다. 각 유형이 하나의 사상만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각 유형마다 중심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포츠사상의 형성은 응답자의 직업, 교육경험 그리고 스포츠 참여 형태 및 종목 등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 스포츠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숙고를 통해 바람직한 스포츠사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체육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스포츠사상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스포츠사상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대에서 스포츠가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사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의 특성 상 소표본 이론을 적용하여 계량적 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 REFERENCES

- [1] K. H. Jung. (2018). *Ideologies in the Age of Extremes: Liberalism, Conservatism, Communism, Fascism 1914-1991*, Seoul : Sanherum Publishing.
- [2] K. H. Park. (2014). *Ideology as a Walk*. Seoul : Humanitas Publishing.
- [3] R. Salect. (2010). *The Tyranny of Choice*. Consortium Book Sales & Dist.
- [4] Y. T. Kim. (2016). *Welfare and Ideology*. Seoul : Hanul Academy. Publishing.
- [5] Y. W. Kang. (2009). Neo-Idealist Physical Education-Sports.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7(4), 97-111.
- [6] J. W. Nam. (2010). Pragmatism in Sports Phenomenon.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8(3), 77-92.
- [7] J. H. Lee. (2002). A Study of Physical Education in Pragmatism: based on John Dewey's View.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0(2), 126-140.
- [8] J. Y. Jang & O. R. Kwon. (2013). Utilitarian Approach of Sports for Welfare and Well-being Society.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21(1), 1-14.
- [9] D. J. Joo & D. K. Kim. (2002). The Current Meaning of Nationalism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in the Trend of Thought.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0(1), 1-16.
- [10] D. C. Ji. (2016). Confucian Thinking and Value Realization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24(2), 67-83.
- [11] H. J. Kim & D. G., Lee(2008). A Study on the Thought of T'oegye's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 Science in Dong-a University*. 26. 33-44.
- [12] J. H. Hwang. (2014). Aristotle's thought of Physical Education(13) : Interpretation of Luck in Sport.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22(1), 69-83.
- [13] S. K. Yie & Y. K. Ahn. (2007). Explorations on Meaning of Human Body & Physical Education within Plato's Idealism.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5(2), 141-162.
- [14] J. K. Cho. (2000). A Study on the idea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the Homeros Ag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9(2). 23-33.
- [15] K. S. Ko., H. T. Oh & Y. K. Kim. (2010). A Critique of the Study on Thoughts of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8(1), 143-154.
- [16] Y. S. Yu. (2018). The Study on the Convergenc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e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125-133.
- [17] H. G. Kim.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Books: Seoul.
- [18] W. Stephenson. (1967). *The Play Theory of Mass Communi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 J. C. Kim. (2013). *A Study on the Holistic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in Body and Mind Curing*.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8(2), 25-33.
- [20] Y. C. Kim. (1995). Idealistic Philosophy and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4(1), 111-120.
- [21] H. J. Lee. (2000). Today and Tomorrow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hilosophy(2): The flow on the thought of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9(4), 61-68.
- [22] S. Gi. Baek & H. N. Kim.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Sport and Goal of Life: Happiness,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9(3), 55-68.

- [23] Y. W. Kang. (2004). Pragmatism and Physical Education. *Th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2), 29-38.
- [24]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8). A Time-Series Analysis for Emotional Dynamics of Sport Issue and Group Emotion: Focusing of Korean Swimming Player Tae-Hwan Par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398-400.
- [25] J. H. Choi. (2018). The Relationship among Ethical Leadership, Ethical Climate, Unethical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7), 451-460.
- [26] M. S. Choi. (2017). Convergence Study about Awareness towar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79-87.
- [27] H. S. Lee & S. M. Oh. (2019). The mediation Effects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 for Male and Femal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121-129.

유 영 설 (Young-Seol Yu)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 관심분야 : 스포츠경영/행정, 학교체육, 육상운동
- E-Mail : yssports4u@hanmail.net